

내일에 바라는 대학상 칠 조

정 범 모 | 한림대 석좌 교수

해방 후 반 세기,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의 대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제 대학 진학을 로마만 비교해 보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두세째라고 할 만큼 커졌다.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성년(成年)이 될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한국 대학의 안팎 모습은 아직도 그리 어른스러운 성숙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피차의 중론이다. 한 나라의 경영에서 대학은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른바 지식 사회라고 일컫는 오늘과 내일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좀더 어른스럽고, 그 막중한 소임을 좀더 다할 수 있는 내일의 대학에 부처, 수필 삼아 일곱 조의 소망을 적어 본다.

한국의 대학들은 서로 많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의 대학 비판이 해당되지 않은 몇몇 대학, 다음의 소망들이 이미 꽤 현실이 되어 있는 몇몇 대학, 몇몇 학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대학상의 대세를 두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또 다음의 논의가 너무 이상적이고 전통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본래 이상은 높은 것이 좋고, 본래 대학은 예나 지금이나 학구의 기관이라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한다.

Ⅰ. 실(實)을 찾아 : 교육과 연구

이제 한국의 대학은 '실(實)'을 찾고 '허(虛)'를 버

려야 한다. 도산 안창호의 말대로 '착실(著實)'을 찾고 '부허(浮虛)'를 버려야 할 때다. 대학은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교육과 연구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면 그만큼 대학은 명색만 그럴 듯할 뿐, 실(實)은 없는 기관이 되고 만다.

본래 오늘날 모양의 대학이 서양에서 12, 13세기에 시작했을 때엔 대학은 성직자, 법률가, 의사 등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순전한 '교육' 기관이었다. 거기에 '연구'의 기능이 가미된 것은 훨씬 뒤 19세기 독일의 '훔볼트' 형 대학에서였다. 훔볼트의 주장은 교수와 학생이 같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교수로서는 최상의 교수 방법이고 동시에 학생에게는 최상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훔볼트 형을 따랐다.

따라서 대학의 제일의는 학생을 잘 교육하는 일이다. 그 일이 허술하면 대학과 대학 교수의 제일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이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현황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우선 교수의 채용과 승진을 위한 평가에서 '연구 실적'만 그 주안이 되고 가르치는 '자질'과 정열 즉, '교수 능력'은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연구 때문에 강의를 등한시하는 교수가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연구는 하나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연구를 잘 소화하고 정리해서 기막히게 잘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교육의 기율(紀律)이 너무 무른 것도 문제다. 한국의 대학은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지만 하면, 여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졸업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많은 대학에서 데모, 축제, 운동회 기타 이런 저런 이유로 '휴강'이 다반사고 규정된 수업 시간이 그대로 지켜지는 학기는 별로 없다. 이제 대학 교육엔 기율이 서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 대학의 대학원 교육은 특히 '부허'의 대표적인 예다. 애당초 그 많은 대학들이 그 많은 대학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부터가 문제다. 대부분의 대학원엔 '착실'한 교육·연구는 별로 없고, 석·박사 취득이라는 명색에만 집착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한 결과로 대학원들 자신들이 한국의 석·박사를 '민지' 않는다. 대학원들이 교수 채용에서는 으레 외국산 석·박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대학원의 부허가 물고 온 한국 대학의 큰 자가 당착이다. 원래 대학원이 없는 대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

부허는 연구에도 있다. 승진에서 연구물이 꼭 있어야 한다는 압력 때문인지, 한국 대학에선 매년 엄청난 양의 연구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서로 잘 읽어주지 않는 풍토 때문인지 아니면 논문의 질 때문인지,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남들에게 읽히고 활용됨이 없는 독백으로 묻히고 만다. 어떤 공과 대학 교수는 이렇게 실도한다. "공학 계통에서 나오는 논문 중에서 남이 한 번이라도 읽어 주는 논문은 6%나 될까 말까, 나머지는 다 사장되고 만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연구비·시간·노력은 부허다. 게다가 근래엔 '연구비' 타는 맛에 연구한다는 자조(自嘲)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연구의 '부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졸업해야 한다.

대학들은 사회 봉사를 교육과 연구에 이은 대학의

제 3의 기능으로 자주 표방한다. 그러나 원래 교육과 연구 자체가 대학이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고, 직접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봉사는 부차적이고 제 3차적이라야 한다. 대학 밖의 각종 위원, 고문, 컨설턴트, 용역, 텔레비전 출연 등의 사회 참여에는 적절한 절도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그것 때문에 교수의 본무인 교육과 연구가 조금이라도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내일의 대학은 모든 면에서 부허를 버리고 착실을 찾아야 한다.

II. 즐거움이 있어서 : 학구의 내재적 가치

한국의 대학에는 학구(學究)의 즐거움이 어느 곳인가 누군가에게는 깃들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어떤 대학 총장이 이런 회고담을 했다. "대학생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부모도 가라고 하고 등무도 가니까 덩달아 대학에 온, 대학을 '성인 유치원'으로 생각하는 약 20%의 학생들이고, 둘째는 대학을 직업을 준비하는 곳, '졸업장' 공장으로 아는 데다수 70% 학생들이다. 셋째가 나머지 약 10%만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대학에 온 학생들이다." 그러나 학구 자체의 재미에서 그 내재적인 보람을 찾는 학생들이 10%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들이 대학의 충추 생명을 이어가고 그들이 많을수록 대학 분위기가 대학 담계 조성되고 파급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학문·지식엔 세 가지 보람이 있다. 첫째로, 교육·학문은 출세에 필요한 간판을 준다. 학사증·석사증·박사증은 옛날 '마패'와 비슷하다. 지식의 '간판관(看板觀)'이다. 그런 간판관이 거세면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진다. 무슨 공부건, 잘 했건 못 했건 간판인 졸업장만 따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문·지식은 쓸모가 있

대학의 어딘가 또는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넘어서 앎의 기쁨 자체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곳과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배움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다. 지식이 있으면 비행기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 수 있다. 지식의 '유용관(有用觀)'이다. 이런 지식관에선 쓸모 있는 지식만 찾고, 쓸모 없는 또는 쓸모 없어 보이는 지식은 찾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지식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경우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의 원리의 발견은 애당초 그 쓸모를 찾으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원자 연구에 골몰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다. 셋째는 지식의 '희열관(喜悅觀)'이다. 지식·학문·교육을 그저 앎의 기쁨, 발견의 즐거움, 돈오(頓悟)의 희열 때문에 반기는 보람이다.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찾는 희열이기도 하지만, 실은 호기심에 차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찾는 티 없는 앎의 기쁨이기도 하다.

학문·지식·교육은 간판도 주고 쓸모도 주고 즐거움도 준다. 대학 안의 많은 학생, 많은 사람들이 간판과 쓸모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 당연한 일이다. 현대 대학은 다양한 전문 직업 교육의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어딘가 또는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넘어서 앎의 기쁨 자체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곳과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간판과 쓸모를 위한 교육·학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앎의 기쁨을 수반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배움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

나 그렇게 만드는 책임은 대학 교수에게 있다. 때로는 교생도 되지만, 교수가 고취하는 호기심과 그 주는 신선한 감동 때문에 결국 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말해서 '출석 점검'은 필요 없는 셈이다. 출석 점검이 엄한 정도에 따라 그것은 재미없는 수업이고, 실속 있는 쓸모와 실속 있는 간판에도 연결됨이 없는 수업인 셈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재미'는 근본적으로 앎의 재미라야 하며, 놀고 마시고 어울리고 노래 부르고 하는 재미는 훨씬 부차적이라야 한다. '테모 문화'의 여파인지, 한국의 대학엔 '축제' 등 '유희 문화'가 너무 많고 너무 요란하다. 그 때문에 수업을 '까먹는' 것도 다반사다. 대학에서 앞다투어 "열린 음악회"를 열려는 열기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놀고 노래하고 어울리고 하는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중심이 어딘가 문제다. 중심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대학은 '부려'의 허구일 뿐, 본래의 대학 존재 이유는 없어진다. 내일의 대학은 어떻게든지 앎의 기쁨이 중심인 대학이기를 바란다.

Ⅲ.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 내야 : 자율과 책무

대학은 자율(自律)을 생명으로 한다. 그것은 12, 13세기 대학 출현 때부터의 제율이다. 그러나 우리

의 현실에서는 어딘지 그것이 제 모습이 아닌 데가 많다. 우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 한때 대모 때문에 학생 지도를 이래라 저래라, 성적은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까지 '지시' 한 적이 있었고, '국민 윤리' 등 강의 과목도 '지정' 했다. 원칙적으로 총장 권한인 입학생 전형은 어느새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권한으로 넘어가서 예나 지금이나 교육부가 그 '지침'을 정한다. 초·중등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대학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율과 더불어 제 제도를 찾으려면, 교육부는 대범하게 저만치 물러서서, 지시·지점·지침은 지양하고 지원과 감독만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타율과 지시의 과잉은 교육하는 사람의 사기를 죽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대학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자율·자치의 생각에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대학인의 자율은 근본적으로 '아카데미 프리덤' 즉, 교육·연구·학습의 자율을 의미하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특히 홀볼트형 대학의 전통적인 이상이다.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배우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대학인의 자유고 또 그래야 한다. 독재 국가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은 실은 대단한 자유·자율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영, 행정, 재정 등은 거기에 의견의 참여는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수나 학생들의 자율 사항은 아니다. 그러기엔 현대의 대학은 대부분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이고, 그것이 교수·학생의 본분도 아니고, 본분에 충실하려면 그럴 시간도 없다.

그래도 관례적으로 또는 학문 자유의 부대 조건으로 대학에 따라 학사(學士)이외에 꽤 많은 자치권이 대학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예컨대 교수 채용, 총장 선임 등에서다. 그러나 그런 자치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자치는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폐쇄적인

자치는 안일·퇴영·위축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 채용에서 동창·동향·동호를 선호하는 관습, 총장 선임에서 동교·동창·동향을 선호하는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 대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로 다른 이류·이색·이형의 종합이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책무성(責務性)의 문제다. 즉, 교수가 교수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냐의 문제다. 그것은 한편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하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 개인으로서의 전문직 윤리(專門職 倫理)를 확립해야 하는 문제이다. 해야 할, 지켜야 할 일이 부실한 정도에 따라, 대학의 자율·자치는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준열한 외부의 비판과 통계를 자초하게 되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대학인 자신들의 자멸·자조를 자초하게 된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율이라는 조건과 마땅히 훌륭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책무성이라는 조건은 같은 동전의 표리일 뿐이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대학인들의 가장 큰 자긍심(自矜心)의 원천일 것이다.

Ⅳ. 권력에 거리를 두고 : 권력과 대학

권력과 대학은 여러 가지로 묘한 관계에 있다. 내일 한국의 대학은 그 관계들을 반성하고 그것을 여러 면에서 새로 정립해야 할 것만 같다. 본래 권력과 학구는 상보(相補)보다는 상충(相衝)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선 자주 논란되는 것은 대학을 전횡으로 압박하고 때로는 각종 유인으로 유화도 하는 정부의 간섭이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유혹이다. 다른 나라에도 그 예는 많았고, 특히 우리도 군사 정부 시절에 그것이 심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옛날에는 노골적인 압력이 많았으나, 근자엔 대학에의 '제정 지원', '연구 지원'이라는

유인으로 통제하고 간섭하고 유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때문에 대학도 교수도 권력에 유유낙낙하는 풍조가 없지 않은 것도 반성해야 할 만한 조항이다. 언제나 권력에 대해서 적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이 학구자로서의 대학과 대학인의 본연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한국엔 '학생 권력', 스튜던트 파워가 거세다. 지난날 정권들의 비정통성에 대한 항거가 길러낸 힘이다. 그 정치·사회적 불가피성 여부, 시대적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학생 권력은 대학 자체에는 학사 운영 기술의 심한 해이의 풍습을 초래했고, 또 한편 학생 활동의 권력 지향성을 부추겼다. 연중 학사 일정은 엉망이 되는 것이 예사였고, 학생 활동은 정치 지향, 권력 지향이 강해졌다. 학생회장 선거라는 권력 다툼의 치열상, 때로는 부패성마저도 사회의 그것을 닮아 갔고, 활동 내용도 대부분 문화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었으며, 학생 활동을 장차 정치 입문의 자격과 경력을 얻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엿보이게 되었다. 이점에도 반성은 미쳐야 한다. 대학이 학구의 장소인 한, 원칙적으로 교수도 학생도 정치와 권력과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팎의 권력 지향이 성하는 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탐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은 외국 대학에서는 보기 드문 또 하나의 권력 지향성이 있다. 즉, 유난히도 많은 대학 교수들이 장관, 국회 의원 등 정·관계에 '진출'한다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까닭이 있어 보인다. 거기엔 "공부하고 등과하고 벼슬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는 옛 선비 사상이 남아 있음직도 하고, 국가 발전 초기의 '지식 전문가 부족' 시대에 관계 학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던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마땅히 '진출' 함직한 인제 그래서 실무 '업적'도 있을 수 있는 인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출'의 수가 많고 그것을 현행하고 선망하는 풍조마저 인다면, 그것은 대학엔 그만큼 역

기능적일 수밖에 없다. 학구의 단절은 학구의 축적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구의 보람을 비학구적 성취와 혼동하게 하면서, 대학 풍토 자체를 권력 지향으로 몰아가기 쉽다. 그래서도 총장 기타 보직자 선임으로 '학내 정치'가 거센 대학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곳곳이 권력·출세 지향적인 나라에서, 내일엔 대학만이라도 모든 권력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V. 같이 닦고 같이 찾으며 : 학구의 공동체

대학은 교수라는 '섬(島)'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 학과라는 섬들, 단과 대학이라는 섬들이 집합해 있는 곳도 아니다. 학과, 단과 대학, 대학은 다 제각기 한 공동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여러 연계 작용과 교호(交互) 작용이 있어야 할 공동체다.

한국의 이른바 종합 대학의 단과 대학들 사이엔 그 교육에서도 연구에서도 교호 작용이 거의 없다. 교과 과정도 서로 연관이 없어서 이 대학 학생이 저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따라서 '종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대학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 사이엔 폐쇄의 벽이 너무 높다.

한 단과 대학 내에 학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 과정도 서로 거의 독립적이고, 이 학과 학생이 저 학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고 도리어 막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학과 폐쇄주의가 심하다. 그래서 '학과'의 벽을 허물고 '학부제'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못되고 도리어 무리한 합병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학과건 학부건 폐쇄성을 없애야 하는 일이다. 개방성, 교호성이 있으면 학과도 좋고, 그것이 없으면 학부로 한들 소용없다. 학부 속에서도 여전히 작은 폐쇄성을 찾고, 다른 학부엔 여전히 폐

쇄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학과 내에서도 교수들간에 폐쇄성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본다. 바둑이나 기타 친교의 자리에는 자주 같이 어울리지만, 각기의 전공 영역에는 서로 '노 터치'로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서로의 예(禮)로 이는 경우도 있다. 교수들의 전공간, 학제간의 학문적인 허심탄회한 간담, 협의, 연구는 드물다. 서로 강의나 연구에 관해서 내 것, 내 것을 터놓고 상의하고 조언을 주고 받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다. 다 제각기 독불 장군이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우선 서로 절차탁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교수 자신이지만, 그보다도 학생이 겪는 손해가 더 크다. "아이디어의 자유 분방한 추구"가 생명인 대학생들이 그 학습의 자유의 범위를 심하게 축소 당하는 셈이다. 또 대학의 교과 과정은 면밀하게 공동 이해, 공동 조정을 거쳐 운영되어야 할 것이지, 자기 재멋대로의 강의의 집합일 수는 없다.

본래 모든 학문은 하나다. 무엇이든 "앎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학문이다. 학문 영역 사이엔 꽤 거리가 먼 것도 있다. 예컨대 의학, 공학, 철학 등이다. 그러나 굳이 찾으면 그들 사이도 관련 분야를 찾을 수는 있다. 예컨대 의학 공학, 의학 윤리 등이다. 그보다도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 기본 학문의 각 영역 사이, 그리고 그 한 영역 속의 여러 분야 사이에서는 서로를 살펴볼 만한 그리고 많은 경우 살펴야 할 상호 관련성은 더 넓고 깊다.

그리고 어느 영역, 어느 분야이건 학문은 근본적으로 '대화(對話)'지 '독백(獨白)'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기에서 상기할 만하다. 학문의 발전은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공동체적인 과정이다. 내일의 한국의 대학은 학구자들의 섬들이 아닌, 부지런히 학문적, 교육적으로 교호 작용을 하는 학과, 단과 대학, 대학 이기를 바란다.

VI. 사람과 사람이 : 인간적인 만남에서

나는 교육을 성립시키는 세 요인을 교사와 교육 내용과 학생이라고 본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교육 아닌 어떤 다른 것이다. 초등학교 선생님(교사)은 곱셈(교육 내용)을 아이(학생)에게 가르친다. 대학 교수가 물리학을 학생에게 가르친다. 따라서 교사가 흥미해지고, 내용이 흐리터분해지고 학생이 흐릿해지는 정도에 따라 그 교육은 흐리멍덩해진다. 또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교육 효과는 '전체론적'이다. 즉, 가르치는 내용만 아니라 교사의 행동 전체가 학습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선생에게서 곱셈만 아니라 그의 말투도 배운다. 학생들은 교수에게서 물리학 내용만 아니라, 그의 접근 방법, 학문관 때로는 그의 생활 스타일도 배운다. 이른바 '사부(師父)'는 검술만 아니라 인생 철학도 풍겨 준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독학(獨學) 대학' 제도를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사이버 대학'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컴퓨터, 가상 현실, 인터넷 등은 현대 교육이 종횡으로 활용해야 할 정보 기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 교사가 없든지 막후에 가려져 있다면 교육 효과는 그만큼 없든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사라는 인간의 학생이라는 인간과의 인간적인 상호 작용을 뜻한다. 사람들이 어떤 석학의 책이나 비디오를 보면 될 것을 굳이 그의 육성 강연을 들으려고 운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한국의 대학은 대부분 큰 대학이다. 이른바 '명문'일수록 더 거대한 대학들이다. 교수·학생 비율도 잘해야 1 : 20, 많은 경우 1 : 40 전후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 교수는 '근무 시간'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수업 책임 시간 9~10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대개 자기 일에 바쁘다. 이래저래 강의 시간 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모임으로 교수와 만나고 이야

“

사람들이 어떤 석학의
책이나 비디오를 보면 될 것은
굳이 그의 육성 강연을 들으려고 운집하는 것은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

기를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최소해진다. 그것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인간'의 만남이 최소해지고, 어떤 학생의 말대로 지식 전달자와 지식 전수자의 관계만 남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흠볼트형 대학의 중심 주장의 하나는 교수와 학생의 공동 연구 참여가 "최상의 교수 방법, 최상의 학습 방법"이라는 신념이다. 그 뜻은 최상의 교육은 집단적 강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주제·과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뚜렷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리운' 교수는 명강의도 명강의지만 나와 그런 인간적인 만남을 베풀었던 분이다.

내일의 한국 대학 교수는 의식적으로 좀더 많은 시간 좀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좀더 많은 학생들과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좀더 자주 만나야 한다.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부르고 찾아가며 만나야 한다. 실은 한국 학생들은 초·중·고교 시절부터 그런 인간적인 만남에 굶주려 있는 학생들이다. 자기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고, 소집단 학술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불려서 근래 걱정·관심·계획이 뭔지를 물어도 좋다. 그저 교정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좋다. 캠퍼스 도처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만남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VII. 꿈을 먹고 사는 곳 : 상아탑

사람들은 그 말을 싫어하지만, 나는 상아탑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대학이 대학인 한, 대학은 상아탑이어야 한다. 대학은 실사회의 문제와 관심에서 약간은 거리를 둔 소외(疎外)된 또는 스스로를 소외한 곳이라야 한다. 대학은 이중 삼중으로 소외가 겹쳐 있는 곳이다.

첫째로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사회에서 소외된 곳에서 소외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권력과 실사회에서 멀었고, 공자와 석가모니도 그랬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묵민심서를 썼었다. 기실 실사회의 현상과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신적 시야는 그 이해 관심에 의해서 채색되고 협소해져서, 그 현상과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이치'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관조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소외된' 직업이다. 경제학 교수는 직접 경제 '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에 관해서' 일 하는 사람이다. 직접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 경제기획원 장관 노릇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장관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직업이다. 학자·교수는 자기 전공 영역의 사회활동의 중심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궁리해야 할 처지에 있는 셈이다.

구경만 하지니. “당장 내가 나가 한다면 훨씬 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속터질 때도 있다. 그러나 실제 나가서 해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래서 교수 출신 장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자마자 “실체가 그렇게 복잡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실토한다. 본래 이론과 실체는 다른 법이다. 학문은 학자의 몫이고 실무는 실천가의 몫이다.

셋째로 대학생도 소외자다. 대학생이면 생리적으로 어른이 다 되어 있어, 옛날 같으면 다 시집·장가갔을 나이다. 단지 고도로 발전되고 복잡해진 현대 문화·문명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배우기 전에는 사회 활동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독립도 못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그저 그가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기만 하는 ‘주변인(周邊人)’의 신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자니 “이유 없는 반항”으로 율화가 터질 때도 많다. 그러나 소외가 학자의 자산(資産)이듯이, 청년기의 소외와 주변성도 실은 알차게 독립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자산인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교수도 학생도 “꿈을 먹고 사는” 곳이다. 꿈이란 이치와 이론, 그리고 이상과 비전을 말한다. 우리는 이론과 이상이 실제와 현실에서 멀고 높은 것일수록 도리어 실제와 현실에의 침투력이 넓고 깊을 수가 있다는 이치에 상도할 만하다. 그것은 마치 비전공자에게는 실제와 현실에서 불가사의하게 멀어만 보이는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이 실제와 현실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고, 또는

어찌 보면 아귀다툼의 현실에서는 아주 비현실적인 ‘사랑’ 또는 ‘자비’라는 드높은 종교 교리가 긴 역사에서 많은 인류의 심금을 울리는 것과도 같다. 다른 영역에서도 사정은 같다. 다만 그 이론과 이상 추구의 출발점의 뿌리만은 견고하게 실제와 현실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전 필수다.

제대로 꾸민 꿈은 잠꼬대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창의(創意)로 이어진다. 제대로 된 꿈은 현실에 타당하고 현실을 이끄는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포한다. 그것은 어떤 화학자가 그렇게 밝히려고 애쓴 화학 공식이 꿈속에서 착상되어 꿈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에 비유할 수도 있다. 내일 한국의 대학은 꿈이 많은 곳, 꿈이 자유 분방하게 휘날리고 교차하는 곳이기를 바란다. **■**

정범모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교육학회장, 충남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한림대학교 총장, 한국 언론 2000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석좌 교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저서에는 『교육과정』, 『교육 평가』, 『행변의 장』, 『가치관과 교육』, 『교육과 교육학』, 『미래의 선택』 등과 편저로 『교육 난국의 해부』 등 다수가 있다.